

TEXTILE & FASHION TREND ISSUE



TEXTILE 정부와 산학연 18명의 SCT 정책 협의회 개최 섬산련, 올해 안에 SCT(섬유산업 지속가능 순환경제) 포럼 발족⁽¹⁾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최병오, 이하 섬산련)가 지난 8월 29일 섬유센터에서 '섬유산업의 지속가능 순환경제(Sustainable and Circularity in Textiles:SCT)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기업, 정부, 학계, 협회 및 연구소 등 18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섬유산업이 ▲기후변화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 ▲선진국 및 글로벌 기업의 친환경 규제를 논의했다.

또한 올해 안에 '섬유산업의 지속가능 순환경제(SCT) 포럼'을 발족하고 공감대 형성과 기술 수

요 발굴 및 추진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협의회가 주축이 돼 스트림 전후방의 유통기업과 재활용 업체까지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중주 과장을 비롯한 효성티앤씨 강태호 상무와 코오롱미래기술원 조은정 상무 등 정부, 기업, 학계, 협회 및 연구소 등 18개 기관이 참석했다.

섬산련 주소령 부회장은 "EU 및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ESPR(지속가능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등 규제가 발표되고, 이로 인한 시장 규칙이

변하고 있다"며 "지속가능 순환경제(SCT)는 섬유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로 우리 섬유패션산업의 최우선 과제로 제조, 유통, 소비자 등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중주 과장은 "섬유산업의 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 공급 시스템 등 단계별 스트림별 연계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SCT 포럼이 이러한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 ESPR :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 Regulation(지속가능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올마크컴퍼니와 '살로몬'이 협업 개발한 Pulsar PRG Knit



TEXTILE 올마크컴퍼니, 스포츠 브랜드 '살로몬'과 파트너십⁽²⁾

30%울 사용된 신발 개발...
온도 관리, 편안함 및 내구성 자랑

올마크컴퍼니가 최근 퍼포먼스 스포츠웨어 브랜드 '살로몬'과 파트너십을 맺고 메리노 울의 잠재력을 활용한 니트 소재를 개발했다.

양사가 협업한 소재는 서늘한 온도에서 향상된 성능을 제공한다. 운동화의 가벼움을 유지하면서 따뜻함과 새로운 터치와 느낌을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 울을 사용했다. 개발한 새로운 니트 소재는 '살로몬'의 최신 Pulsar PRG Knit 신발에 활용되어 온도 관리, 편안함 및 내구성을 자랑한다. 특히 내구성, 성능, 메리노 울 섬유 함량 및 엄격한 품질 기준에 대한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상징적인 울 블렌드 퍼포먼스 로고인 '올마크(Woolmark)' 인증을 받았다. 스피너가 생산한 원사를 활용했으며, 신발의 전면 갑피는 발가락부터 발목 밑부분까지 30% 메리노 울로 제작했다.

올마크컴퍼니 측은 "메리노 울은 편안한 활동을 위한 탁월한 온도 및 습기 관리, 통기성 및 내구성을 제공한다. 새로 개발한 '살로몬'의 Pulsar PRG Knit는 휴대 가능하고 여행에 적합한 기능성 섬유로 편안한 피트와 일관된 성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3D DIGITAL OTB패션그룹, 패션산업 SCM에서 시의 역할 탐구⁽³⁾

AI, 제품 개발·머천다이징·마케팅·공급망 관리 등 역할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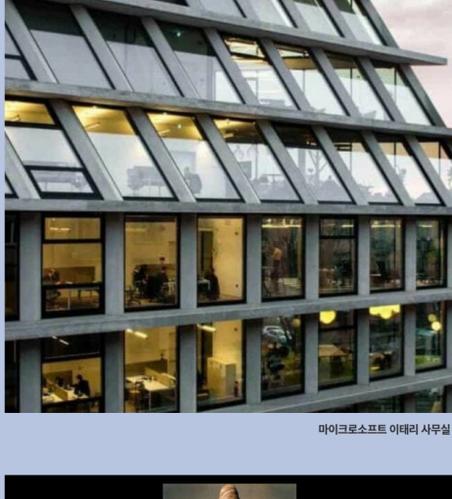
이태리 OTB패션그룹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베인앤커퍼니 등과 함께 "인공 지능의 날"을 개최하고 패션산업과 시 활용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달라노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OTB 지주회사 및 다양한 브랜드 관리자 50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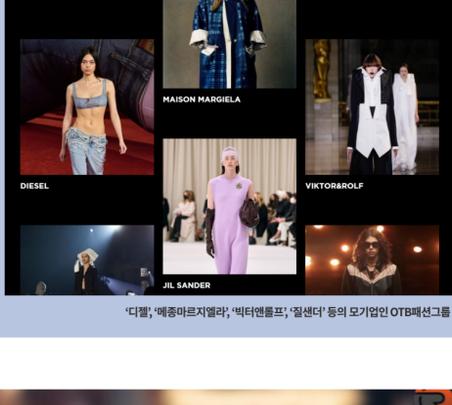
이날 회의에서는 패션과 럭셔리 부문의 대한 인공지능의 기회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명품 기업의 가치, 상품과 프로세스에서 기본 요소로 인식되는 가운데, 제품 개발, 상품화, 마케팅, 공급망 관리, 판매, 유통, 고객 관계 등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도출했다.

제품 개발 측면에서는 시는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선호도를 식별하고, 성공가능성 높은 신제품 개발에 도움을 준다. 마케팅 부문에서는 개인화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의 참여와 구매를 유도한다. 공급망 관리에서는 수요 예측, 재고 관리, 배송 추적 등을 통해 최적화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렌조 로소 OTB그룹 창립자는 "기술과 AI가 패션, 럭셔리 브랜드에 중요하지만 장인정신, 창의성, 필수 기술을 대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빈센조 마이크로소프트 이탈리아 CEO는 "비즈니스, 특히 패션 및 럭셔리 산업에서 시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패션기업과 협력하여 디지털 혁신 지원과 시 사용 사례를 발견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성장과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태리 사무실



'디젤', '메종마르티니엘라', '빅터앤롤프', '질샌더' 등의 모기업인 OTB패션그룹



카시오가 NFT 기반의 '자샵'을 런칭, 메타버스로 진출한다

3D DIGITAL 카시오 'G-SHOCK', 메타버스 세상 속으로⁽⁴⁾

미국 특허청 상표권 신청... 1억개 이상의 아이템 출시 예고

일본 전자 대기업 '카시오'가 '지샵(G-SHOCK)' 브랜드를 메타버스로 확장하고자 한다. 카시오는 이달 초 블록체인 기반 NFT 브랜드로 '지샵(G-SHOCK)'을 재장비하고 이더리움 스케일링 네트워크인 폴리곤(Polygon)에서 발행된 NFT를 통해 출시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Casio ID를 보유한 사용자라면 회사 공식 웹사이트에서 NFT 구매가

가능하다. 사용자는 1만 5,000개의 NFT 기반 지샵(G-SHOCK) 크리에이터 패스 중 하나를 신청하여 전용 디스코드에 액세스할 수 있다.

'탐탐'과 '탐텐키즈'가 1조원 매출을 바라보는 가운데 남성복('지오지아', '앤드지', '올젠', '에디션센서빌리티') 4개 브랜드가 4,000억원, 에이션패션('폴햄', '프로젝트엠', '폴헵키즈')가 4,500억원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신성통상은 자체 생산 라인에서 전자 물량의 80% 이상을 소화하며 원가절감, 판매배수 확장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올해는 과감한 오프라인 유통망 확대와 스피디한 물량 대응, 최근에는 자체 온라인을 매출까지 확보하며 다각적인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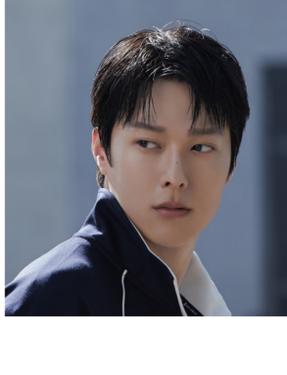
다카시 오 '카시오' CEO는 "디지털 세계의 많은 아바타가 '지샵(G-SHOCK)'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디지털 세계에서 브랜드 존 재감을 높이고 싶으며 메타버스 시장의 확장성을 염두에 두면서 미래지향적 기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통상 '탐탐'의 모델정기우



'프로젝트엠' 광고 모델 최우성과 함께 한 최보



신성통상이 계열사 에이션패션과 함께 올해 1조 7,750억원을 전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신성통상은 지난 상반기 전년 대비 17% 상승했으며,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탐탐'과 '탐텐키즈'가 1조원 매출을 바라보는 가운데 남성복('지오지아', '앤드지', '올젠', '에디션센서빌리티') 4개 브랜드가 4,000억원, 에이션패션('폴햄', '프로젝트엠', '폴헵키즈')가 4,500억원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신성통상은 자체 생산 라인에서 전자 물량의 80% 이상을 소화하며 원가절감, 판매배수 확장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올해는 과감한 오프라인 유통망 확대와 스피디한 물량 대응, 최근에는 자체 온라인을 매출까지 확보하며 다각적인 성장

을 이뤘다. 하반기에는 '탐텐'의 신규 유통망 추가, 언더웨어 및 '밸런스' 애슬레저 상품을 강화해 외형을 키울 방침이다.

에이션패션은 상반기 '폴햄'의 일라스카, '프로젝트엠'의 PRJCT, '폴헵키즈'의 영스터 뉴 라인 이 매출을 견인했다. 하반기에는 비효율 매장을 철수하는 대신 100평 이상의 메가스토를 통해 효율적인 면을 보완할 예정이다. '폴햄', '프로젝트엠'의 여성 상품의 비중을 강화하고, MZ 신규 고객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성통상은 e-굿즈몰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탐텐몰'을 '굿웨어몰'로 개편하고 패션&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FASHION 패스트패션, 폐의류 재활용에 속도 낸다⁽⁶⁾

'자라' 'H&M' '망고' '푸마' 등 폐의류 재활용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

유럽연합(EU)이 패스트패션에서 배출되는 의류 쓰레기 대폭 감축을 위한 방책으로 패션기업들의 중고 의류 재사용 및 재활용 수직에 소모되는 비용 기부를 의무화하는 새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패스트패션 기업들은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운용하는 등 적극 투자에 나서고 있다.

세계 최대의 패스트패션 기업인 '자라(Zara)'는 올해 초 모다 리(Moda Re) 의류 재활용 프로젝

램에 오는 3년 동안 총 350만 유로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패스트패션 부문의 인디텍스 최대 경쟁사들인 'H&M', '망고' 등도 비영리 단체들과 협력을 체결하고 2025년부터 효력에 들어갈 EU 의류 재활용 의무법에 대비, 자체적인 의류 및 직물 재활용 사업을 운영 중이다.

'푸마(Puma)'도 플라스틱 재활용 테크 기업인 카르비오(Carbios)와 협력 체결을 맺고 오는 2025년까지 '푸마' 아패럴과 액세서리 제품

75%를 재활용 생분해성 폴리에스터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카르비오 사는 '온(On)', '파타고니아(Patagonia)', '살로몬(Salomon)' 등 고급 스포츠 아패럴과도 협업하는 프랑스 소재기업인 인도네시아의 인도라마 벤처스(Indorama Ventures)와 MOU를 맺고 페플라스틱 플라스틱 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기사 및 사진 출처

1) 한국섬유신문 - 섬산련, 올해 안에 SCT 포럼 발족, 23년 8월 31일
2) KNITTING TRADE JOURNAL - Knitted offers a cool performance, 23년 9월 7일
3) OnMSFT.com - Microsoft explores AI and fashion at Milan headquarters meetup, 23년 9월 7일
4) 테크인리뷰블릭 - Casio Creating G-Shock Watches Through Polygon NFT in Metaverse, 23년 9월 6일
5) 패션비즈_1조 8,000억 향한 신성통상 '고공행진', 23년 9월 11일
6) 녹색경제신문 - 글로벌 패스트패션, 폐의류 재활용 서두른다, 23년 9월 4일